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국콘텐츠진흥원

Vol. 89

위클리 글로벌

2018.10.15.

Weekly Global

2018

목 차

2018. 10. 15. 마케팅지원팀

구 분	제 목
미국	- 애플 대 퀄컴 1차 특허 분쟁에서 애플 판정승 - 시리우스XM, 판도라 35억 달러에 인수 -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할리우드발 한류 부상
중국	- (정책) 국가세무총국 방송계, 연예 산업 납세 의무 통지 - (기업) 텐센트, 중국 정부 게임산업 규제로 조직 개편 단행 - (화제) 중앙광파전시총국 장강삼각총국, 상해총참 지역 센터 정식 출범
중국 심천	- 중국 광동성 동관(东莞)시 문화산업 성장률 전국 성급 도시 중 1위 - 9일 만에 112만 명 참관, 심천LED등광 공연 개최
일본	- 후지TV와 이온, 어린이용 IP 공동 개발 계획 발표 - 소츠, 2018년 8월 분기 결산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세
유럽	- 유럽의회, VOD 서비스에 유럽 콘텐츠 할당량 30% 지정 - 서유럽 TV 매출, 2023년까지 500억 달러 돌파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 한콘진, 2018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 개최 - 종합 음악 페스티벌 <싱크로나이즈 페스트> 개최
중동	- MBC 그룹 페르시아 TV 채널 런칭 - 람타라 스튜디오, 중동 미디어 콘텐츠 종합 컨설팅 기업 설립 - 두바이 영화 TV 위원회, 두바이 국제 콘텐츠 마켓과 협력 체결
브라질	- 남미 최대 디자인 페스티벌 Pixel Show 11월 개최 예정 - 브라질 VR/AR 이벤트 'Hyper Festival' 10월 개최 예정 - 브라질 애니메이션 산업 새로운 플랫폼에 힘입어 성장세

미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 애플 대 퀄컴 1차 특허 분쟁에서 애플 판정승

- ㅇ 29일(현지시간) 토머스 펜더 ITC 행정법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애플이 퀄컴의 한 가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중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일부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주장한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
- ㅇ 퀄컴은 지난해 7월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사 인텔 칩을 탑재하여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함
- ㅇ 이에 애플은 퀄컴이 관련 없는 기술까지 과도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왔음이 드러났다며, 혁신 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해하려는 시도를 무역위원회가 멈추어 줘서 기쁘다고 표함
- ㅇ 퀄컴 측은 무역위원회 판사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침해를 인정하면서 침해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함
- ㅇ 퀄컴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며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또한, 퀄컴은 최근 애플이 자사 기술과 거래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인 인텔에 넘겨줬다며 추가로 소장을 제출하기도 함
- ㅇ 한편, 애플은 아이폰의 모뎀 칩으로 퀄컴 제품을 사용하다 아이폰 7 시리즈부터는 인텔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시리우스XM, 판도라 35억 달러에 인수

- ㅇ 빌보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북미지역 최대 위성 라디오 방송사인 SiriusXM (이하 시리우스 XM)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PANDORA(이하 판도라)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35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함
- ㅇ 판도라는 Spotify, 애플 뮤직에 이어 미국 음악 스트리밍 업계 3위인 회사로 시리우스XM은 판도라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판도라에 4억8천만 달러를 투자함
-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리우스XM은 판도라를 35억 달러에 인수하거나 주당 10.14달러를 인수할 예정이고, 시리우스는 기존의 구독형 프리미엄 위성라디오와 판도라의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임
- ㅇ 판도라는 현재 월간 7,000만 명 이상의 활성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프리미엄 가입자가 아님. 판도라는 약 600만 명의 유료가입자만 보

유하고 있는데 반해, 업계 1위인 Spotify는 유료가입자 8,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음

- ㅇ 시리우스XM 대표인 짐 마이어는 청취자에게 최상의 라디오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청취자를 끌어 들일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힘
- ㅇ 한편, 미국 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연간 66억 달러 규모로 매년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

□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할리우드발 한류 부상

- ㅇ 최근 할리우드에서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바로 아시아계,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주인공인 영화와 드라마가 북미권에서 제작돼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할리우드발(發) 한류'가 부상하고 있음
- ㅇ 올해 초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던 영화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의 분투를 그린 이 작품으로, 한국인 이민자 가정이 배경이라 주요 배역을 한국계 배우들이 맡음
- ㅇ 지난 8월에 공개된 한국계 작가 제니 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도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ㅇ 공개되었던 당시, 영화에 소품으로 등장한 한국식 요구르트, 마스크팩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음
- ㅇ 특히 이 작품은 금발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하이틴 로맨스 코미디의 여주인공으로 한국계 미국인을 세운 게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음
- ㅇ 지난달 한국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김씨네 편의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등장하는 가족 시트콤으로, 이민자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을 유쾌하게 그려내 인기를 끌고 있음
- ㅇ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아시아계 배우를 단순히 '동양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계' 같은 구체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이제 시작인만큼 다양한 장르에서 보다 많은 인종의 배우들이 연기할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전함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 [정책] 국가세무총국 방송계, 연예 산업 납세 의무 통지

ㅇ 10일부터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방송계, 연예 산업을 대상으로 한 <납세 질서 바로잡기 공작(税收秩序工作)>을 실시한다고 밝힘.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말까지 고소득 방송업계(영화사,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는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점검 뒤, 누락된 세금이 있을 시 자진 납세 할 것을 권고함.

ㅇ 국가세무총국은 2018년 12월 말까지 탈세액을 스스로 납부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벌하지만, 기간 안에 탈세액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19년부터 시행 될 특별 조사 기간 안에 탈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힘.

□ [기업] 텐센트, 중국 정부 게임산업 규제로 조직 개편 단행

ㅇ 지난 9월 30일 텐센트는 6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결정함. 이번 개편에는 기존 7개 사업부는 6개로 재편함. 7개 사업부 중 모바일 인터넷(MIG),소셜 네트워크(SNG), 온라인미디어(OMG)가 해체되고, 클라우드&스마트 사업부(CSIG)와 플랫폼&콘텐츠 사업부(PCG)가 신설되고, 기존에 게임 사업을 담당했던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IEG)는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함.

ㅇ 텐센트에서 출시를 앞둔 신작 게임은 모두 정부의 판호 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발매가 무기한으로 연기됨.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는 실명제와 강제 셧다운제가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포커 게임 천천덕주(天天德州)는 사행성 문제로 지난 달 서비스가 중단 됨.

□ [화제] 중앙광파전시총국 장강삼각총국, 상해총참 지역 센터 정식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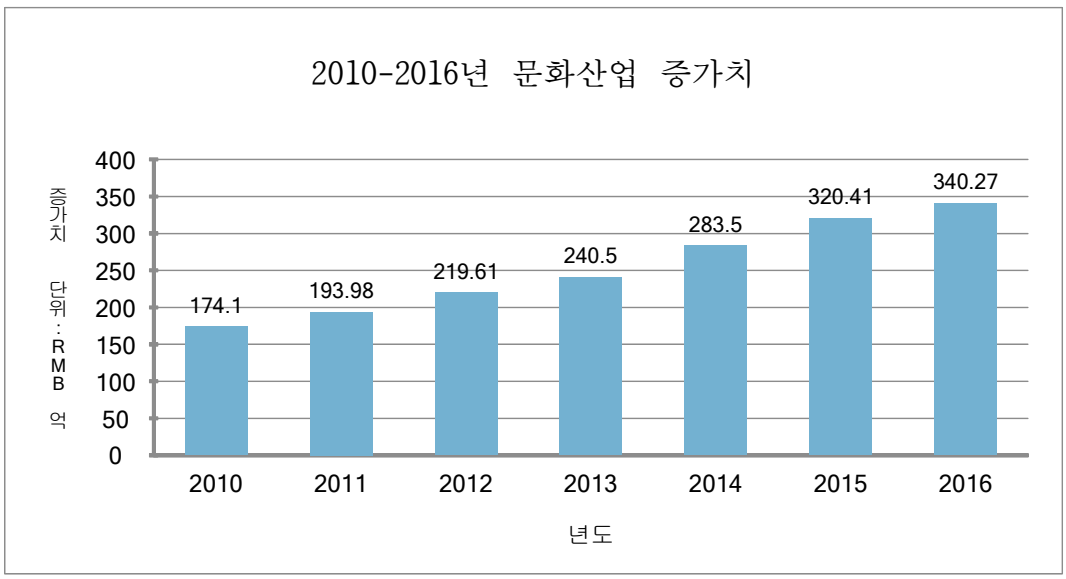
ㅇ 지난 8일 중국 상해에서 중앙광파전시총국(中央广播电视总台), 장강삼각총국(长江三角总部), 상해총참(上海总站(상해광파전시지역본부)) 지방 광파전시(라디오, 방송) 센터 출범식을 가짐. 이 날 출범식은 중국 광파전시총국이 설립 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지역 센터 출범식으로, 중앙정치국위원・상해시서기 이강(李强)과 중앙선전부 부부장・중앙광파전시총국총장 신해웅(慎海雄)이 자리에 참석함.

중국 심천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 비즈니스센터

□ 중국 광동성 동관(东莞)시 문화산업 성장률 전국 성급 도시 중 1위

- ㅇ 2018년 9월, '동관시통계국'이 동관시문화산업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동관시 문화산업 성장률이 전국 성급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음.
- ㅇ 동관시 정부에서는 '동관시문화도시건설계획(2011-2020年)', '동관시현대문화산업도시시설계획(2011-2020年)', '동관시문화산업발전자금관리방안' 등의 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0억 위안을 지원하고 있음.
- ㅇ 현재 동관시에는 '玉兰(옥련)대극장', '동관도서관', '과학기술박물관', '관중예술관', '청소년활동센터' 등 총 80개 이상의 문화센터, 400여개의 도서관, 450여개의 문화 활동장소가 있음.
- ㅇ 또한 동관시의 문화산업관련 기업의 수는 682개이며, 2012년 대비 60.8% 증가함. 기업들의 총 자산 성장률은 2012년 대비 57.4%가 증가하였으며, 영업 수익양은 39.6%, 영업 이윤은 63.2% 증가함.



지표(단위)	2012 년	2016 년	증가치 (%)
법인설립기업(개)	424	682	60.8
자산총계(억 RMB)	502.1	790.3	57.4
영업수입(억 RMB)	757.5	1057.7	39.6
영업이윤(억 RMB)	22.3	36.4	63.2

<출처: 동관시통계국(东莞市统计局)>

□ 9일 만에 112만 명 참관, 심천LED등광 공연 개최

- ㅇ 9월 28일 저녁 '辉煌新时代'를 주제로 심천 중심구 LED등광 공연이 첫 시범을 보였음. 중국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공연으로, 중앙방송과 인민일보 등 중국내 주요 매체들이 방송보도를 하였고, 심천시민 및 국내외 해외 여행객들에게 큰 방향을 가져오고 있음.
- ㅇ 심천 중심구 LED등광 공연은 심천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프로젝트로 중국내 최초로 개최하였음. CBD중심구역에서 43개 빌딩을 '대·소 Point Light 조합'을 활용하여 118만개의 LED등을 연결한 270° 아이맥스 영상 공연임.
- ㅇ 행사는 40주년 개혁개방과 국경절을 기념하여 9월 28일부터 평균 10만 명의 대중들이 관람했음, '산해지성, 개혁지창, 창신지도, 화해지경'(山海之城 `改革之窗 `创新之都 `和谐之境) 네 가지 테마로 기획됨.
- ㅇ 이번 공연의 매 장면 기획안은 심천의 국제화, 심천시민의 문화의식발전을 표현했고 올해 12월31일까지 계획됨.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푸티엔(福田) 지방 정부에서 이번 공연을 위한 투자금은 2.38억 위안, 시공비용으로 1.89억 위안이 들었음.
- ㅇ 심천중심구 경관조명 공정항목기획 관계자인 청화통가(清华同衡)연구소의 부소장과 청공인거광전(清控人居光电)연구소 부원장 진해원(陈海燕) 말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중국내 주요 대도시 중 심천시의 등광제 예산이 가장 낮았지만 심천을 표본삼아 향후 중국내 등광제 공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출처: 바이두(baidu)>

일본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

□ 후지TV와 이온, 어린이용 IP 공동 개발 계획 발표

- ㅇ 2018년 10월 10일, 일본 지상파 방송사 후지TV(フジテレビ)와 유통 체인기업 이온(イオン)이 어린이용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짜자자잔! 프로젝트(じゃじゃじゃじゃ~ン! プロジェクト)'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ㅇ 두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회사의 강점을 살린 '어린이를 위한' 문화 보급, ▲새로운 IP 개발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창조, ▲국내/해외에서의 이벤트 실시, ▲정보 제공과 PR, ▲어린이의 정서교육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함
- ㅇ 후지TV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개발 능력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점을 보유한 이온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 설립된 다수의 이온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 ㅇ 개발 예정인 IP 사업은 영상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인터넷 영상 서비스, 상품화와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온은 판권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 해외 진출의 경우,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 판권 사업에 주력할 예정임

□ 소츠, 2018년 8월 분기 결산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세

- ㅇ 2018년 10월 11일, 애니메이션 사업 기업 소츠(創通)가 2018년 2분기 결산을 발표함. 매출액은 168억 7,3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하였고 영업 이익은 26억 1,500만 엔(13.5% 감소), 경상 이익은 27억 2,500만 엔(8.2% 감소), 순이익은 18억 6,900만 엔(8.5% 감소)이었음.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했으나 이익률 자체는 여전히 높음
- ㅇ 사업별로 보면 애니메이션 기획,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사업의 하락세가 눈에 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한 115억 9,900만 엔이었음. 소츠는 이제까지 고수하던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 위탁 수입이나 방송 사업 수익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것이 매출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함
- ㅇ 판권 사업의 경우 건담(ガンダム) 시리즈가 목표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5억 6,800만 엔(12.4% 감소)이었으며 광고 사업도 프로모션과 광고 건수가 크게 줄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짐

유럽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센터

□ 유럽의회, VOD 서비스에 유럽 콘텐츠 할당량 30% 지정

- 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VOD 플랫폼에 대한 유럽 콘텐츠의 할당량을 30%로 책정하는 새로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정을 승인했음
- ㅇ 이러한 결정은 유럽의 시청각 부문의 문화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는 방송사와 Netflix, YouTube,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안의 일부임
- ㅇ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VOD 플랫폼은 콘텐츠의 직접 투자 및 콘텐츠 관련 국가 기금에 대한 기부를 통해 유럽의 시청각 콘텐츠 개발에 기여해야 하며, 각국의 기여 수준은 해당 국가의 온디맨드 서비스 매출에 비례해야 함
- ㅇ 이외에도 새로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정에는 광고 방송시간 규제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추가됨. 광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해당되는 일일 방송 시간의 최대 20%를 차지할 수 있으며, 광고 배치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김. 오후 6시부터 자정에 해당되는 황금시간대 역시 20%의 시간을 광고에 할당할 수 있음
- ㅇ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경우, 미성년자를 폭력, 혐오, 테러, 유해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VOD 플랫폼은 사용자가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서유럽 TV 매출, 2023년까지 500억 달러 돌파할 것으로 전망

- ㅇ TV 시장 조사 기관 Digital TV Research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 지역 TV 매출은 2017년 390억 달러(약 44조 4천억 원)에서 향후 5년간 500억 달러(약 56조 9천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ㅇ TV 시리즈와 영화를 통한 OTT 매출은 2017년 100억 달러(약 11조 4천억 원)에서 5년 후 230억 달러(약 26조 1,700억 원)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전체 TV 매출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46%로 높아질 전망됨. 그러나 유료 TV 매출은 같은 기간에 20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ㅇ SVOD 매출은 2023년까지 80억 달러(약 9조 1천억 원)가 증가할 전망이며, Netflix가 SVOD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2%에서 2023년 57%로 증가하여 124억 7천만 달러(약 14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임
- ㅇ 이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 지역은 TV 구독 수가 2017년 1억 5,300만 건에서 2023년 2억 5백만 건으로 증가하여 SVOD 구독 수는 2017년 말 5천만 건에서 2023년 9,900만 건으로 증가하며 TV 총 점유율 역시 33%에서 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한콘진, 2018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 개최

- ㅇ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카르타 쉐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 호텔 및 꼬따 까사블랑카 몰에서 <2018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가 개최됨
- ㅇ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1:1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찾아가는 비즈니스상담 등 B2B 프로그램과 K-Pop 콘서트, 콘텐츠・뷰티・상품・관광・문화 전시체험 및 무대 이벤트 등 B2C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ㅇ B2B 프로그램에는 국내 콘텐츠 기업 40개사가 참가하여 인도네시아 외에도 주변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의 바이어들과 약 500여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함
- ㅇ B2C 프로그램에서는 하이라이트, 린, 러블리즈, K.A.R.D., 스누퍼 등이 참가한 K-Pop 콘서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대사인 <하이라이트>의 팬미팅, K-콘텐츠 전시체험관 등이 운영되어 약 45,000여명의 참관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음
- ㅇ 한편, <K-콘텐츠 엑스포>는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어 베트남, 태국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한류 종합 박람회임

※ 이미지 출처 : 직접 촬영

□ 종합 음악 페스티벌 <싱크로나이즈 페스트> 개최

- ㅇ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 전시회장(Jakarta International EXPO)에서 <싱크로나이즈 페스트(Synchronize Fest)>가 개최됨
- ㅇ 이 행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팝, 락, 힙합, 레게, 당둣(트로트) 등 다양한 음악을 아우르는 종합 음악 페스티벌로, 그 당시 인기가수들의 추억의 음악을 즐기는 행사임. 특히, 작년 행사 때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행사장에 깜짝 방문하여 큰 이슈가 되었음
- ㅇ 꼬일(Koil), 바라수아라(Barasuara), 말리크&디센셜(Maliq&D' essentials), 나이프(Naif), 퓨어 새터데이(Pure Saturday), 디파 바루스(Dipha Barus), 실라 온세븐(Sheila on 7), 클럽에이티즈(Clubeighties), 모카(Mocca), 꾼또 아지(Kunto Aji), 프로젝트 팝(Project Pop), 엔다엔레사(Endah n Rhesa), 잠루드(Jamrud), 새기도그(Shaggydog), 파디 리본(Padi Reborn), 슈퍼맨이즈데드(Superman Is Dead), 란(RAN) 등 118명의 인도네시아 국내 유명가수들이 대거 참여함
- ㅇ 한편, 본 행사 입장료는 1일 권 245,000루피아(약 18,000원), 3일 권 450,000루피아(약 33,000원)로, 기존 음악 페스티벌 입장료와 비교하여 다소 저렴한 편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중동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UAE 마케터

□ MBC 그룹 페르시아 TV 채널 런칭

- ㅇ 중동 최대 방송기업가운데 하나인 MBC(The Middle Eastern Broadcasting Center) 그룹이 지난 6일(토), 페르시아 TV 채널을 런칭하며 특히 젊은 시청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힘
- ㅇ 방송은 아부다비 소재 위성방송기업인 야스샛(Yahsat)을 통해 제공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음
- ㅇ 마젠 하이에크(Mazen Hayek) MBC 대변인은 "초기에는 드라마, 코미디, 리얼리티 쇼, 할리우드 및 볼리우드 영화 등을 자막이나 더빙과 함께 방송할 예정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함
- ㅇ 하이에크는 "이란 등 페르시아 지역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거주민도 주요 시청자"라고 말하며, "MBC 페르시아가 이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이 시작되면 이란 외 기타지역으로부터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함

□ 람타라 스튜디오, 중동 미디어 콘텐츠 종합 컨설팅 기업 설립

- ㅇ 두바이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람타라아트프로덕션(Lammtara Art Production)의 모하메드 사이드 하리브(Mohammed Saeed Harib) 대표는 두바이 국제 영화제(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FF)의 전 총괄 책임자 쉬바니 판디아 말호트라(Shivani Pandya Malhotra, the former managing director of DIFF)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 종합 컨설팅 기업 '니어이스트 엔터테인먼트(NearEast Entertainment)'를 설립한다고 밝힘
- ㅇ 중점 영역은 TV, 음악, 영화, 예술, 라이브 이벤트 등이며 기획에서, 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킹, 실행까지 전 방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특히, 중동 지역의 영화 제작인에게 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완성된 영화가 중동 지역을 넘어 글로벌 관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배급까지 지원할 계획
- ㅇ 또한, 다양한 해외 영화의 중동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 배급 지원 및 현지 시장 컨설팅 등 서비스도 제공
- ㅇ 말호트라는 "처음부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초기에는 몇몇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늘려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힘

□ 두바이 영화 TV 위원회, 두바이 국제 콘텐츠 마켓과 협력 체결

- ㅇ 두바이의 TV, 영화, 광고 제작을 위한 인허가를 주관하는 "두바이 영화 TV 위원회(Dubai Film and TV Commission: DFTC)"가 UAE의 콘텐츠 시장 활성화육성을 위해 "두바이 국제 콘텐츠 마켓(Dubai International Content Market: DICM)과 전략적 미디어 파트너쉽을 체결했다고 밝힘
- ㅇ DICM은 올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콘텐츠 전문 전시회로서, 콘텐츠 제작에서 배급까지 콘텐츠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
- ㅇ DFTC 대표 자말 알 샤리프(Jamal Al Sharif)는 "DICM과 같은 행사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의 허브로서 두바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의 전문가와 현지인력들이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며, "DFTC는 두바이를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지로서 인력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고 밝힘

브라질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10.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라질 마케터

□ 남미 최대 디자인 페스티벌 Pixel Show 11월 개최 예정

- ㅇ 제 14회 Pixel Show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행사 장소는 상파울루 시 북부에 위치한 Pro Magno 엑스포로 수도권 외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한 대형버스 및 밴 이동 서비스 또한 이루어질 예정임
- ㅇ 금년도 행사에서는 총 250명의 국내외 아티스트 및 업계 전문가들이 총 200시간에 달하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들 중 가장 큰 기대와 주목을 받는 강연자는 캐리비안의 해적, 캡틴아메리카, 엑스맨, 혹성탈출 등의 Assistant Directing을 맡았던 Larry Katz 그리고 스타워즈와 후크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Terrance Manson이 있음
- ㅇ Pixel Show의 주최사 Zupi의 공동설립자인 Simon Szacher의 설명에 따르면 올 행사의 예상 참가자는 총 4만5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 관계자 그리고 관련 학계 학생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함
- ㅇ Simon Szacher은 또한 금년도 행사에는 저렴한 소재로 손쉽게 제작 가능한 제품을 가르치는 수공예 미술 워크숍에서부터 혁신적인 비즈니스 및 문화산업을 위한 최첨단 기술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할 예정이며, 전문가 및 학생들을 위한 예술 산업 창업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될 것이라고 함
- ㅇ Pixel Show는 메인 강당을 포함한 총 일곱 개의 테마 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테마 룸들의 경우 창업과 비즈니스, 애니메이션과 영상, 기술과 혁신, 예술과 디자인, 음악과 광고, 미래사업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기획된 더빙과 음성을 주제로 구성 될 예정임
- ㅇ 창업을 위한 워크숍에만 참가 하는 방식 또한 존재하며, 이틀에 걸쳐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이벤트 종료 후 곧바로 아텔리에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브라질 VR/AR 이벤트 'Hyper Festival' 10월 개최 예정

- ㅇ 브라질 VR/AR 콘텐츠 제작사인 'Hyper Immersive'가 주최하는 'Hyper Festivel'이 10월 개최될 예정임
- ㅇ 'Hyper Immersive'의 Fabio Hofnik 이사의 설명에 의하면 Hyper Festival은 가상 및 증강 현실이 기업과 사회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임

- ㅇ 참가자는 가상현실 게임, 360도 3D 영화 그리고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업체들의 전시 부스가 마련 될 예정임
- ㅇ 페이스북은 이벤트의 주요 후원사로 포괄적인 개념의 Immersive Reality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증강현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관련 솔루션의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 ㅇ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의 경우 업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관련 콘텐츠 개발 워크숍 및 멘토링 있을 예정임

□ 브라질 애니메이션 산업 새로운 플랫폼에 힘입어 성장세

- ㅇ 브라질 애니메이션 시장은 2012년 개정된 방송법과 공공자본의 지원을 통해 이례적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음
- ㅇ 2012년 개정된 방송법은 통신사의 유료 방송사 겸업을 가능케 하였으며 개정의 주요 목적은 브라질 시청각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늘리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에 발생해오던 방송사들의 폭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임
- ㅇ 브라질 방송법상 케이블 채널은 일일 기준 최소 3시간 30분 이상 국내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방영해야하며, 2016년 기준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는 15억 헤알 (약 4천108억 원)에 이르렀음
- ㅇ 브라질 시청각 제작협회 'APRO (Associacao Brasileira da Producao de Obra Audiovisual)'의 Odete Cruz 과장은 "케이블 채널 외에도 웹 스트리밍 플랫폼의 증가로 인해 애니메이션 시장의 제작 수요가 상승 중..." 이라고 전했음
- ㅇ 브라질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Sebrae (Servico Brasileiro de Apoio as Micro e Pequenas Empreas)' 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의 수주를 받기 위한 수준의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창업에 드는 최소 비용은 6만5천헤알(약 1천780만원)로 3D애니메이션 제작의 경우에 더욱 큰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함
- ㅇ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은 공공정책을 통한 자금 지원을 시행 중이며, 창업 희망자는 브라질 시청각 기금 'FSA (Fundo Setorial do Audiovisual)' 등의 단체를 통해 제작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상현 센터장 : +86-10-6501-9971 / willbe@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선혜 센터장 : +81-3-5363-4511 / hwang216@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과장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남미마케터(브라질 상파울루) 박희란 과장 : +5511-2476-5120 / brazil@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